신안군, '베어질 나무' 가로수·공원 조경 활용

개발사업 따른 소나무·동백나무·후박나무 등 기증받아
군, 수목 이식사업…녹색공간 확충·예산절감 효과 주목

신안군이 베어질 나무를 가로수나 공원 조경으로 활용해 녹색공간 확충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을 끈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하는 '나무은행'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베어질 수목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이용해 녹색공간 확충과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기증수목이식사업의 예산을 따로 확보해 나무은행사업과 함께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압해읍 신용리에 나무병원을 운영 1만2600여주의 각종 나무를 수집해 가로수길 조성과 각종 공원화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작 예정부지에서 버려질 동백나무 400그루를 1004섬 분재공원과 수국공원에 조성해 관광객의 이목을 끌었다.

또 안좌중학교 건축물 신축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80여년된 소나무 7주를 안좌 대리마을에 옮겨 심어 아름다운 소나무공원을 조성했다.

이와함께 반송과 후박나무, 은목서, 금목서 등 200여 그루의 나무를 수집해 도로변과 소공원 등 조경이 필요한 곳에 옮겨 심어 11억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개발로 인해 버려지거나 불가피하게 베어질 가치 있는 나무가 있을 경우 신안군의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에 활용할 것이니 군에 기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은 다도해 수많은 푸른 섬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군으로 각 섬에 어울리는 꽃을 테마로 섬마다 사계절 꽃이 피는 'Flopia 섬'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군은 최근 안좌중학교 건축물 신축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한 80여년된 소나무 7주를 안좌 대리마을에 옮겨 심어 소나무공원을 조성했다. 〈신안군 제공〉

함평천지한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함평월야농협, 2억5000만원 투입 식육처리실 완공

명품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함평천지한우가 더욱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돼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7일 함평월야농협에 따르면 총사업비 2억5000만원(군비 1억원, 농협중앙회 5000만원, 월야농협 1억원)이 투입해 월야농협 식육 처리실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월야농협 하나로마트 식육 처리실은 부지면적 142㎡에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 외포장실, 위생실 등이 구축됐다.

특히 농가에서 사육된 한우를 바로 도축, 포장할 수 있도록 HAPPC 시설이 마련돼 품질 고급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월야농협은 이 곳에서 가공된 함평 한우를 TV홈쇼핑과 온라인 거래 등을 통해 연간 5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구상이다.

전창희 월야농협 조합장은 "이번 식육처리실 준공으로 함평천지한우가 고급한우 브랜드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한편 우리 지역 축산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신안군, 여객선에 '작은도서관' 설치

섬 주민·관광객들 책과 함께하는 여행 눈길

신안군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책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인 '출렁이는 작은 도서관'〈사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출렁이는 작은 도서관은 여객선 6척(비금, 도초, 하의, 신의, 장산 방면) 객실 내에 책장〈사진〉을 설치해 도서 500여권을 비치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에 주민과 관광객에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문화공간이다.

군은 일반도서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신안군 관광과 군정 주요 정책을 담은 책자 등을 비치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출렁이는 작은 도서관은 철부선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도서 교체로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누구나 손쉽게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탄력'…국비 10억 확보

영광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장애인복지타운〈조감도〉 건립비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영광군은 지역 장애인의 체육·문화생활 보장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요구했다.

사업비 49억 중 10억원을 국비로 확보,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인 장애인복지타운은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영광읍 우산공원 연면적 1135㎡ 부지에 3개 동 규모로, 지역 장애인 단체와 수화통역센터, 주간 보호센터, 급식실,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선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산공원과 주변 예술의전당과 어우러져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소방서, '화재진압 기술 경연대회' 실시

영광소방서는 최근 지휘관의 현장지휘 능력과 팀 단위 소방전술능력을 강화하기위해 '화재진압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경연은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위험성 증대와 화재양상의 다변화에 따라 현장에 강한 소방관이 요구되는 시점에 일상적인 교육훈련을 벗어나 경연을 통한 팀워크와 현장 적응성 강화를 목적으로 화재진압 4인조법, 속도방수 종목 등의 경연을 시행했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무안군, 도로명주소 업무평가 행안부 우수기관 표창

무안군은 2018년도 도로명주소 업무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업무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무안군은 평가에서 ▲미래세대(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교육과정 운영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한 주소사용 편의 향상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적극 확충 등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지난 9월 전남도 도로명주소 워크숍 연구과제 발표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로명주소 업무혁신을 통한 시책개발과 행정서비스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주소를 찾기 쉽도록 간단하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